

## 희망에 찬 새출발을

<카톨릭의대 간호학과 4년>

박 가 실

대학교 입학이라는 감격을 느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란다.

하기야 국민학교 졸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의 졸업을 겪었으니 졸업이라고 해서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다른 어느 때의 졸업보다도 유달리 많이 생각하게 되고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다.

과거의 졸업들은 또 다른 학교로의 입학의 기회를 주고 있었지만 대학졸업만은 다시 입학시험을 치러 학교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대학졸업이라기 보다는 전 학생 생활의 졸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생을 졸업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하나의 세계로 입학할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원고지를 대하고 보니 새삼스럽게 긴장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다시 한번 흘러간 4년간을 되새겨 본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여 절절대던 입학 당시부터 어렸던 한 사람의 사회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제대로 결정해야 하고, 모여 앉으면 제법 심각하게 여성의 행복이나 장애문제 등을 꺼리질 없게 논할 수 있도록 성장한 오늘날까지의 갖가지 일들과 슬렸던 일들이 주마등 같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간다.

신입생의 특권(?) 처럼 되어있는 meeting을 처음 갖던 날의 설렘, 맹꽁이 같이 구두를 신고 동산을 갔다가 구두가 찢어져서 곤란하고 속상했던 일, 학기말 시험때 독일어를 너무 못해서 낙제 할가봐 떨리는 마음으로 제시형 발표를 기다리던 일,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기숙사에 입학하여 집이 그리워 밤새 뜬눈으로 새우던 일,

처음으로 병원 실습을 나가 실수만 연발하던 일 등등..... 결코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나 생각할 수록 아쉽고 그렇기만 한 나날이었다.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기 마련이라고들 하지만 대학생활에 대한 추억이란 그렇게 평범한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비록 짧은 동안이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하여 반 사회인으로서 사회를 약간은 알게 되었고 병원 실습 덕분에 병원이라는 소사회를 호흡할 수 있었고 또 일반적인 교양에서 일보 진전하여 간호학이라는 전문분야의 지식인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의존만 해오던 생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삶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였다.

또한 감정과 꿈에만 빠져 있던 소녀에게서 이성을 활용할 수 있고 현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의 숙녀로 변하였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구태여 이런 점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졸업한 선배들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구동성으로 학생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너무나 넓고 삭막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망망대해에 있는 무인도에 혼자 표류된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4년 간 싫증나게 들던 선생님들의 잔소리(?)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더 들고 싶은 이상한 매력을 가지게 된다.

생각갈아서는 더 이상 진전도 말고 퇴보도 말

고 항상 학생이라는 이름 하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자연을 여행할 수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자연을 여행할 수도 없으려니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외부적인 조건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회로 진출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물론 약장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떠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결코 밀려나듯이 떠나고 싶지는 않다. 비련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성장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 첫발을 내 딛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새롭고 험한 작오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결코 사회는 우리들에게 호의만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는 나른 작오로 사회에 입학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날달리 간호학을 전공하였다. 우선 졸업을 하던 른 사회에 부딪히기 전에 병원이란 소사회에 접하

게 된다. 먼저 하나의 독립된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간호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공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환자의 요구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기술과 지식을 지닌 참된 간호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원만한 사회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 보다는 더 보람 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무조건 서운해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달 같이 깨어져야만 병아리가 나오듯이 다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지 않는가? 보다는 많은 것을 안겨다준 대학생살을 끝내면서 지난 날에 대한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기 보다는 앞으로 오는 세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와 각 방면에 가능한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작오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전 학생생활을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을 트대트 하여 좀 더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서 앞으로의 생활을 원만하게, 평범한 하나의 여성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찬 새 희망을 가져본다.

## 질게 되살아나는 감격을 안고

박 혜 숙 <경희간호학교 3년>

펠릭이는 커튼 사이로 조용히, 이렇게 싸늘한 겨울밤에 시시각각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 저울과 함께 내려진 커튼의 번함없는 그 다정한 색

제가 3년이란 연분을 지나오고, 또 얼마간은 나와 숨결을 같이 할런지도 모른다.

소복한 여인의 눈매는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

기 보다는 황홀하며 신비스럽다. 소복히 담겨진 보송한 수분과 함께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진실과 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진실과 참, 이 속에서 움이튼 사랑과 봉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빛인 것이다. 소복한 여인은 하얀 빛의 반사에서 강렬한 인생의 올바른 삶을 배우게 될 것 같아진다. 「하이네」가 말했던 죽음이 길고 싸늘한 길이라면 정녕 추억은 메끈하게 조화된 아름다운 길일 것이다.

드루가 인생을 살아 갈 때는 한번씩은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면서 현실에 선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비판하며, 거기에서 오는 슬픔과 환희를 제 나름대로 맞이하기 마련이다.

소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상과 꿈은 언체고 그 자체 형상대로 꿈이며 이상인 채로 죽음, 그 순간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희」의 닫혀진 문을 두드릴 때의 피빛 가슴엔 그래도 한아름 꿈이 있었고,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태우며 초조하게 서성대던 을분과 서러움이 지금, 매듭을 지을 무렵에선 부질없게도 꿈은 또 한 발자욱 물러서서 나를 채찍질 하고 있다.

꿈을 실현하지 못해서 현실을 탈피하려는 상식화된 사념에서 현실의 순응자가 아니라, 살벌하고 험난한 세파에 나 자신을 지탱해 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불어 준 것은 배움이며 그 배

움의 참 뜻을 일깨워준 나와 내벗들의 스승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다.

황무지에 뿌려진 씨앗도 추수를 하기 마련이며, 가난한 우리들의 정성스런 부모님도 딸의 성장을 때전스레 치어다 볼 그 날. 흰 빛으로만 순화된 마음에다 한 줍의 눈물을 안고 교정을 나설 작정이다. 눈망울에 고여지는 액체는 서러움 때문이 아니다. 분노, 고뇌, 아니면 의도움이나 허무같은 것 때문은 더욱 아니다. 따스한 벗들의 곱다란 미소를 나누며, 한 분 한 분 나와 벗들의 아쉬움인, 어느 교정에서도 결코 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으로 이어진 그 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더무도 질게 질게 되 살아나는 감격 때문일 것이다.

머지 않아 초원의 광장에 규칙적인 봄의 찬가가 우리들을 맞이할 것이며, 앙상한 나무가지는 푸른잎새로 물들일 것이다. 까마득하게 기대가 멀어져만 가는 높다란 병원 건물에 하나 둘 풀 위가 잡혀지리라 마음조려 염원을 헤보며, 다시 한번 내가 교정을 찾았을 때, 가슴을 화알짝 띄고 마음껏 새로운 공기를 흡입하며 명랑스레 웃으며 반겨 주는 후배들의 그늘진 곳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과, 한 분도 떠나시지 않고 계속 「경희간호학교」를 밀어 주는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상봉하고 싶어진다. 이제 속이는 마구 뛰어야겠다. 동생을 위해 고스란히 고생을 혼자 겪어온 언니에게 부끄러운 자세로 수료증을 내밀어야겠다. 마즈막 어리광 비슷하게……

## 아쉬움을 남기며

〈우석간호학교 3년〉 김 해 득

차륜의 소음도 이제 깊은 밤의 통로로 질주해 가며 차츰 밤의 무리에 흐끄뜨레한 여운을 남기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록한다.

Violin의 G현이 예리하게 가슴을 문질러오는 밤의 고요 속에서 조용한 저울의 그림자를 응시하고 있다.

생의 등본에서 70년대의 하이얀 긴 초를 이어서 불을 지켜보는 순간들이다. 연문을 악착같이 쌓아 보려는 고집보다는 연문을 꼼꼼히도 거슬러 받아보려는 속셈이 쾌심한 것 같다.

모든 제어와 타협과 설득의 테두리를 벗어나 미몽의 세계의 틀입이라는 fantasy 속에서 대학 생활을 맞이했을 때 난 너무나 「허」해짐을 느꼈었다.

인간의 골레 속에 뱀도는 잡다한 현실 지극히 협소한 테두리에 박혀 행동의 실마리를 전혀 의식치 않던 상태에서 난 불만과 만족의 무서운 경계를 따라 침착을 내세우며 엄밀한 root를 따르려 했을 때, 너무나 큰 생의 위력에 질식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소 실의와 경망에 가까운 생의 비판을 하다가도 생활의 진실 속에서 잠시 감지해 갈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받을 때면, 난뿔뿔한 환희와 희열을 느끼곤 했다.

번딘과 고뇌의 테두리 속에서 자포자기 하는 환자들에게 온정의 대화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권유에서 환자 자신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자세로 되어 있었을 때……

가끔 피로와 권태가 한꺼번에 온 몸에 베어올 때 친한 벗들과의 여행 일정을 따라 계곡의 토미와 자연의 조화를 절감하며 공명과 탄복으로 바가분트의 서정을 느끼며 지냈던 지난 날들……

꿈같이 지나가 버린 여행의 뒷 골목에서 지나친 나태의 행운을 절쳤던 자신이 한없이 부러워지는 밤, 밀물과 썰물의 조수를 생각하면서도 정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번거로와 있

지는 않다는 자부실에서인가보다.

지극히 딱딱하리라는 「기숙사」의 고정관념 보다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며 정을 포갤 수 있었던 순간들……

항상 우리는 이별이라는 준비와 함께 미련과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보다.

값싼 행복보다는 생활 속에 narcissism을 찾으려는 애쓴 보람에서 더욱 우린 삶의 영역에 비트서 행복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졸업을 눈 앞에 둔 채 난 조용히 생각해 본다. 이젠 사회의 기성인으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자기의 역량을 심분 발휘하며 과동과 교전을 거부하는 무구한 저항보다는 무엇인가에서 부닥치고 자부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길러야겠다고

삶이란 큰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리고 원형도 각형도 아닌 인생 무대에서 패자와 승자가 판가름되는 선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고매한 사고보담 오직 내부의 심연 속에 자기애의 충실과 더불어 인생행로의 도포를 의식해야겠다.

침체되고 도사렸던 자아는 이제 차츰 의욕적으로 이완시키는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였다.

웃음의 잔해와 같은 긴 겨울의 여운이 너무나 결정과 같은 마음새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봄의 계절에 앞서 난 내일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침묵이 아쉬운 것이다.

<44 P. 에서>

#### 《참석자 소개》

Miss Dorothy Moses : 노인병간호학 대표위원이며 산·디아고 주립대학의 간호학 교수.

Mrs Lee Killam : 일반 내·외과 간호학 대표위원, 오래몬 의과대학 병원의 간호과장이며 간호학 부교수.

Miss Mary Crawford : 모자보건간호학 대표위원, 뉴욕의 콜럼비아대학 부학장이며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간호과장.

Miss Enid Mathison : 공중보건 간호학 대표위원, 윌리엄스주 보건 위원회 공중보건 간호과장.

Miss Gloria George : 정신과 간호학 대표위원, 슈카코의 일리노이주립 정신병원 간호과장.

<A.J.N. 1458~1463 July, 1969에서>